

# “五戒 지키면 학교생활이 즐거워요”

오계

## 금정중학교 수계법회 40년째... 불교인재 양성 산실

금정총림 범어사 설립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완)는 올해로 40회를 맞은 수계법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생활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젊은 불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나란다축제 교리경시대와 대상 수상자 배출 등 불자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는 금정중학교 불교 교육 과정을 살펴봤다.

10월 28일 학내 명정관에서 봉행된 2014년 수계식에는 1학년 전교생을 포함 총 180명이 마정수기를 받았다. 이로써 금정중학교에서 계를 받은 학생은 총 1만 2847명이 됐다. 이날 전계대화상에는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홍선 스님,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 대원사 주지 오산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지장 스님, 범어사 율원 환응 스님 등이 증명법사로 나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처음으로 계를 받은 김응호 학생(14)은 “학교에서 봉행된 수계식은 학생으로서의 자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고 전했다.

금정중학교 수계법회는 1975년 광덕 스님을 계사로 첫 봉행됐다. 수계식이 40년 동안 금정중학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의 오계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청소년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금정중학교만의 교육 철학 때문이다.

불살생은 살생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학우에게 폭력 및 왕따에 대한 부당성을 일러주고 불마하는 청소년들이 흔히 쓰는 욕설과 헐담에 대한 자제심을 길러준다. 또한 불사음을 당부함으로써 단정한 몸가짐을 일러준다. 불음주는 컴퓨터 게임과 음란물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며 불투도는 죄책감 없이

## 75년 광덕 스님 계사로 첫 실시 수계자 1만 3천여 명 배출

## 다양한 불교 프로그램 운영 나란다축제 대상 수상 등 쾌거

흔히 행하는 절도를 경계하게끔 한다. 이는 최근 학생들이 교재를 주인의 동의 없이 서로 들고가는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에 지도교사들이 당부하는 계목이기도 하다. 또한, 수계식은 불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자신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자리다. 일년에 한번 열리는 수계식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으로서 알맞은 자세로 학업에 정진하고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주도적으로 이끌 것을 다짐한다.



금정중학교는 지난 40년 간 총 1만 2847명의 수계자 배출 등 불교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혼자서 지키기 어려운 계목을 학우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약속함으로써 결의를 다질 수 있다.

수계식 외에도 금정중학교 곳곳에는 생활불교가 스며들어 있다. 학내 반야당에서의 자발적인 아침 예불, 이석연 지도법사와 함께하는 차담시간 등이 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108배 및 부모은중경사경, 촛불명상 등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금정중 학생들은 예선과 합숙을 거칠 만큼 교리경시대와 준비·출전에 열정적이다.

올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제6회 나란다 축제 불교교리 경시대에서는 대상 1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금정중 학생들이 경시대회의 모든 상을 휩쓰는 성과를 냈다.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비블자 학생들에게도 금정중학교의 불교 교육은 효응이 높다. 금정중 내 부산 파라미타와 보이스카웃 불교연맹 범어수효단은 템플스테이, 캠프 등으로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리인 해오름연극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연극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회향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자타이행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금정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6호인 불설장수멸죄 호제동자 다리니경과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2호인 조선시대 석조여래좌상을 보존하고 있어 부산불교 역사의 증거이기도 하다.

김나영 객원기자

# 부산서도 달라이라마 방한 촉구

## 11월 10일 부산 KBS홀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부산지역 준비위원회(집행위원장 목중)는 11월 10일 부산 KBS홀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와 전법도량, 신행단체 및 사부대중 2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 선포식에서는 부산지역집행위원장 목중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부산지역준비위원장 심산 스님의 환영사,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의 격려사로 진행됐다. 이어 강수대 부산지역포교사단장과 신정옥 전법도량 총무의 결의문 낭독으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그동안 서명 받은 서명지를 불단에 봉헌하고 사후서헌으로 선포식을 마무리했다.



11월 10일 부산 KBS홀에서 열린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부산지역 선포식

이어 2부에서는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정목 스님의 진행으로 금강스님, 마가 스님, 월호 스님이 출연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지역집행위원장 목중 스님은 “시대적 아픔을 풀이하고 생명존중과 자비의 상징인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성사되어야 한다”며 “종교와 정치를 초월한 평화의 상징인 달라이라마를 초청하여 국민적 고통을 치

유하고 상생과 평화의 정신이 이 땅에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선포식은 지난 7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작, 9월 14일 울산에 이어 부산에서 개최됐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는 범국민적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여론을 확산 2016년에 방한을 성사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 청도 운문사 보살계수계법회 봉행

## 사부대중 140여 명 참석

청도 운문사는 11월 9일 경내 대웅전에서 보살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는 주지 일진 스님을 계사법사로 사부대중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

에서는 화엄반 4학년 학인스님들과 운문사 산내 암자 사리암의 봉사자 및 운문유치원 담당 선생님 등이 수계를 받았다.

일진 스님은 “계는 악업을 소멸하고 선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사윤회와 해탈을 벗어나는 지름길과 터전을 닦고자 갈구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



운문사 보살계 수계법회

는 것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넉넉한 보시행을 하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천성산 습지 특성 살린 산림복원 절실”

## 11월 12일 천성산 관련 토론회... 지율 스님 등 발제

양산시 산림공원과, 내원사 그리고 천성산의 친구들은 11월 12일 양산시청 분관 소회의실에서 천성산 산림복원 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원대 자연지리학과 오경섭 명예교수는 “천성산은 세계가 주목할 고일 습지이며 이런 특성에 맞게 산림복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율 스님은 “양산시가 생태고리를 무시하고 산림복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한다”며 “그동안 군부대가 사용했던 땅 3분의 2가 내원사 사유지로 포함되어 있으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멈추고 습지가 자연 그대로 복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더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산림공원과 김종영 과장은 복원 방향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습지로 확인 된 부분은 훼손할 생각이 없고 군부대 철수 후 남은 페타이어, 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내원사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산시는 문화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천성산 산림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성산 산림복원 지역은 196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40여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사업 면적 9.6ha 중 내원사의 사유지가 52% 포함되어 있다. 현재 양산시는 토사면 고르기, 노면 고르기 등의 토지 공사과 구조물 공사, 식재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 부산 차인연합회 7대 회장 보혜 스님

## 제1회 청량차 문화 축제로 취임식 대체... 장학금 전달

“혼탁한 이 시대를 치료하는 맑고 향기로운 차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차인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부산 기장 청량차 주지 보혜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스님은 11월 9일 제1회 청량차 문화 축제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한국청옥문화예술협회에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부산 차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취임하면서 문화예술을 위한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청량차에서 차 문화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며 “지역 불교 문인들과 차인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고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혜 스님은 부산차인연합회 이사, 부산 차인대학 총장, 부산불교신문 협회 부회장과 기장 불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기장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도 문화예술장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문화예술장학회는 2년 전부터 부산 기장 불교연합회 스님들을 중심으로 장학금 및 예술인들의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문화예술장학회는 이날 동명대 불교문화학과에 장학금 5백만원도 기부했다.

하성미 기자

# 봉화 축서사 보살계수계대법회

## 만등불사 및 청정음악회도

제 3회 축서사 보살계수계대법회 및 만등불사와 청정음악회가 11월 8일 경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율사 전계대화상 연담 종진 스님, 김가이사리 금곡 무여 스님, 교수아사리 태허 무관 스님 등이 참여했다.

만등불사와 청정음악회에는 동국

대 정각원 음악법사이자 동국대음악원 찬불가 힐링스쿨 강사 정형 스님이 공연했다.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은 “보살계 수계법회와 만등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가득하길 바란다. 보살계는 불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의식이다. 계율은 악을 경계하고 선을 가르치는 불교도덕으로 행위 기준이며 생활의



봉화 축서사 청정음악회 장면

규범이다.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불교적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계율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동명대-대만 불광대 MOU 체결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 불교문화콘텐츠학과와 대만 불광대(총장 양조상)불교학과는 11월 12일 동명대 경영관에서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2+2 복수 학위제’를 시

행한다. ‘2+2 복수 학위제’는 동명에서 2년 수학 후 대만 불광대에서 나머지 2년 동안 학업을 하면 두 대학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학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유산 학술대회

#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 造像과 禮敬

| 일시 | 불기2558(2014)년 11월 27일(목) 오후 1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10-770 서울시 동구구 우정로55길 45  
Tel. 02-733-9945

| 주최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 주관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풀어내는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 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아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정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